

고양시 작년 풍등 화재로 110억 넘는 피해 발생

“풍등, 화재위험 심각... 유통·판매 막아야”

개인이 날리는 풍등, 신고의무 없어 나무에 걸리거나 민가에 쓰레기로

2020년 새해 첫 날 독일 북서부에 있는 크레펠트 동물원에 풍등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사육중인 고릴라와 침팬지 오랑우탄 등 30여 마리가 목숨을 잃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10월 고양시 저유소에 풍등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11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인천 을왕리해수욕장에서 한 가족이 풍등을 날리고 있다. 풍등은 화재발생의 위험이 높지만 정부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제재가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것은 풍등 날리기 행사 등 대규모 행사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개인이 날리는 풍등은 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풍등을 불법 위험물로 지정해 유통과 판매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인천영종소방서 관계자는 ‘강화도에서도 풍등으로 인한 사고를 몇 번이나 직접 목격한 경험이 있다’며,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으로 풍등 사용 자제를 홍보하고 있지만 단속 권한이 없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없는데 정부에서 유사취급유치법 불법으로 지정해야 유통을 막고 단속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인천취재본부=김창근 기자 mirex@

설 명절과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소원을 빌러 나오는 여행객이 날리는 풍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풍등은 고체 연료에 붙인 불로 등 안의 공기를 데워 하늘로 띄워 올리는 작은 열기구로 공중에서 5분가량 머물다 연료가 다 타면 지상으로 떨어진다. 그러나 바람이 많이 불면 위로 올라가지 않고 전기줄이나 나무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또 연료가 다 탄 풍등은 주변 지역과 민가로 떨어져 쓰레기가 되고 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풍등으로 인한 화재는 2014년 10건, 2015년 4건, 2016년 4건, 2017년 10건, 2018년 5건 등 최근 5년간 33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으나 을왕리 해변의 화재 처럼 초기에 진화해 큰 불로 번지지 않은 건수는 제외되어 있다.

소방청은 소방기본법을 개정해 풍등 날리기를 ‘화재 예방상 위험행위’로 규정해 소방당국이 금지할 수 있는 활동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건립 용역 시작

“1000억 투입... 이르면 2022년 완공”

광주시 타당성검토·기본계획 수립 입지 관련하여 행정절차 논란도 전시장·회의실·주차장 등 조성 재원 마련 등 상황에 따라 지연

입지 논란이 일었던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건립 사업이 궤도에 올랐다.

다만 행정 절차나 예산 확보 방안 마련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개관 시기는 다소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가 발주한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신축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최근 시작됐다.

용역 업체 선정 입찰에서 재공고에

도 신청자가 나타나지 않아 수의계약이 이뤄졌다.

광주시는 4월 말까지 용역 결과를 넘겨받아 구체적인 설립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소는 김대중컨벤션센터 건너편 제1주차장(1만8900여㎡)으로 8000~1만㎡ 규모의 전시장, 회의실, 주차장 등을 갖추게 된다.

입지와 관련해서는 1주차장에 노인회관 신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2전시장 건립이 추진되면서 한때 논란이 일기도 했다.

광주시는 10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심의, 자체 도시계획 변경, 지방재정투자심사, 시의회 공유재산 취득 심의 등 절차를 마치고 공사에 들어갈 방침이

다.

완공 시기는 이르면 2022년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행정 절차 진행과 재원 마련 등 상황에 따라 지연될 소지가 다분하다.

광주시는 700억~1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지만 정부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 사례를 검토해보니 제1센터는 국비 지원을 받더라도 증축이나 추가 투자는 자치단체 형편에 따라 진행됐다”며 “일단 내년 본예산 수립 과정에서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행안부, 산업부와 행정적인 논의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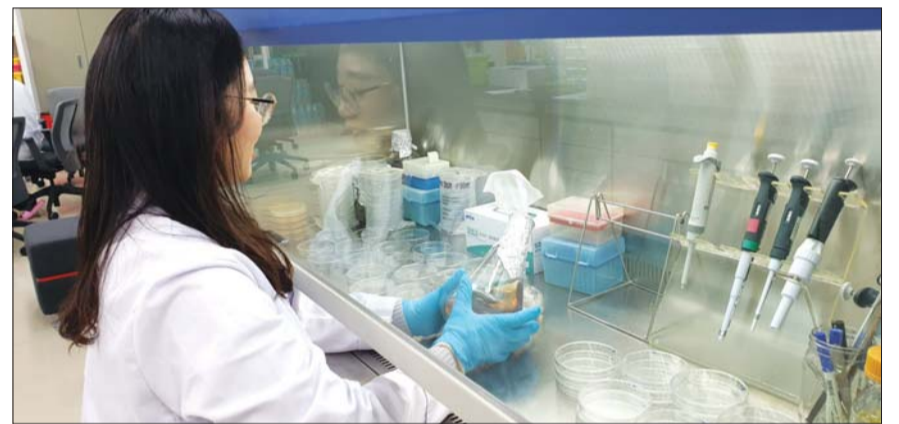
미생물에 물리는 농가... 악취저감·작물생육 탁월

상주시 농업기술센터 시설오이·축산농업인에 인기 뿌리 활성화·퇴비발효 등 효과

상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미생물관이 2020년 연초부터 농업인들로 북적이고 있다. 시설오이 농업인은 물론 축산농업인들까지 농업미생물을 공급받기 위해 센터를 찾고 있다.

농업미생물이 겨울철에도 인기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겨울철의 경우 일조량이 적고 온도가 낮으며 흐린 날이 많아 오이 생육에는 가장 불리한 시기다. 이때 농업미생물을 주변 뿌리에 활력을 주고 양분 흡수도 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최근에는 축산농업인들에게도 인기가 많다. 악취를 줄이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시행되는 퇴비부숙도(퇴비가 썩는 정도) 측정사업 때문이다. 퇴비를 잘 썩어야 악취가 나지 않고 작물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축사 악취를 줄이려는



상주시농업기술센터는 매년 농업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축산 농업인들의 농업미생물 수요가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농업미생물관에서 생산하는 미생물은 4종(고초균, 효모균, 유산균, 광합성세균)으로 매년 상주시 농업인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공급량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한 해 동안 공급량은 200톤이었고, 올해는 퇴비부숙도 측정사업 시행으로 공급량이 210톤 정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다. 첫해인 2013년에 140톤을 공급한 데 이어 2018년에는 180톤으로 증가했다.

2019년 농업기술센터의 농업미생물 활용 목적 수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업미생물에 대한 관심도 증가, 축사 악취저감 효과, 작물생육 향상, 퇴비발효 등에 효과 있어 농업미생물관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김홍희 기자 gi2136@

동네방네

진도군, ‘올해의 무형유산도시’ 선정... 국비 1억지원

전남 진도군은 군이 전남도 최초로 ‘2020 올해의 무형유산도시’ 사업에 선정돼 최근 국립무형유산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이번 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

1억원을 지원받아 무형유산의 목록화와 기록화, 지역축제와 연계한 기획공연, 학술대회 등 무형유산 관련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남=김남중 기자 5555knj@

완도, 동계 전지훈련지로 각광... 올해 68개팀 방문

온화한 기후를 유지하는 전남 완도군이 동계 전지훈련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20일 전남 완도군에 따르면 이달 초 광주진흥고 야구팀을 시작으로 안성시청 테니스팀, 경희대 농구팀, 광주체육고 역도팀 등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이 완도에서 체력과 기량을 다지기 위한

동계훈련에 나서고 있다.

종목별로는 축구 25개 팀(540명), 야구 4개 팀(141명), 테니스 11개 팀(79명), 소프트테니스 1개 팀(10명), 역도 7개 팀(50명), 육상 2개 팀(20명), 농구 15팀(50명), 배드민턴 2개 팀(26명), 사이클 1개 팀(10명) 등 총 9개 종목 68개 팀(926명)에 달한다. /전남=김남중 기자

장성군, ‘장성형 푸드플랜 시스템’ 만든다

(사회적 이슈 고려, 먹거리 순환)

‘푸드플랜사업 실행계획’ 보고회 용역 결과 토대로 추진방향 설정

전남 장성군이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인 푸드플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푸드플랜은 먹거리를 생산·유통·소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안전·복지·환경·일자리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먹거리를 순환시키는 종합전략을 의미한다.

장성군은 최근 군 청사에서 쉼지역 파트너플러스가 수립한 ‘푸드플랜사업 세부 실행계획’ 용역 결과를 토대로 최종보고회를 열고 사업추진 방향을 잠정적으로 설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시된 안은 ‘맞춤형 생산을 위한 농



상무아파트 내 패밀리 마켓 직거래장터. /뉴스

가조직화’, ‘통합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조직 구성’, ‘민·관 거버넌스의 효율적 운영’, ‘먹거리 연계부서의 정책통합’, ‘지역 먹거리 주체의 협력’ 등이다.

‘2020년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 준비를 비롯해 전문가를 채용한 먹거리사업단을 구성하고 ‘장성형 푸드플랜 시스템’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광주=김태수 기자

광주·전남

1인가구 비율 30% 넘겨

광주·전남에서 1인 가구 비중이 30%를 넘었고, 27년 후인 2047년엔 4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20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광주·전남 가구 현황과 전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 비중은 광주 31.2%, 전남 32.7%였다.

2047년엔 광주 39.6%, 전남 40.0%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2인 가구 비중은 광주 2019년(이하 연도 생략) 26.2%에서 2047년(이하 연도 생략) 34.9%로, 전남은 32.7%에서 36.7%로 각각 늘어난다.

반면 3인 가구 비중은 광주 20.2%에서 17.6%로, 전남 18.0%에서 16.6%로 각각 줄어든다.

/광주=김태수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44 | 해질 / 17:43

1월 21일 (화) 음력 : 12월 27일

수도권 날씨 -6 ~ 5°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10/4, 동두천 -9/5, 가평 -9/5, 파주 -11/4, 서울 -6/5, 양평 -8/5, 인천 -5/3, 수원 -4/4, 용인 -4/4, 평택 -7/5, 백령도 -2/3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